

제 1 교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나브로 1차 모의평가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나브로국어연구소**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15:00 시행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나브로 1차 모의평가

출제위원

오르비 말랑CAU[651922]

오르비 라플라스[741476]

오르비 국어1타[804728]

오르비 권토중래[949101]

포만한 공부해라공

편집위원

오르비 고구마[900828]

검토위원

오르비 피렘T[476057]

오르비 강도균 국어[692173]

오르비 올라프[753108]

오르비 Gist헤리케인[763843]

오르비 심프P[811076]

오르비 유나루[828987]

오르비 죽은시인의 사회V[862632]

오르비 솔의 눈[952053]

포만한 hyg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나브로국어연구소**에 있습니다.

이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 변형, 가공할 경우 저작권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그림들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이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반응을 본 후) 놀란 분들이 많군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최근 예술 작품 창작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 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여 정보를 해석, 추론하며 학습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청중의 질문을 듣고) 프랑스의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화 1만 5000여 작품을 토대로 학습한 뒤 창작을 해냈습니다. 그 중 한 작품이 경매에 함께 출품된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 6배 높게 시장에서 평가되면서 인공지능의 예술품에 새로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연구원들은 또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감성과 이성을 가진 유기체만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작품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반해, ‘오비어스’의 개발 연구원들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나,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 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인간의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놓고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진행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청중이 강연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제시 후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마무리하여 강연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2.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학생 1: 인공지능의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서 놀랐어.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은 기존 작품의 변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
- 학생 2: 책에서 현행법상 저작자로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만 인정한다고 읽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또한 저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 학생 3: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주제라 인공지능의 예술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런데 연구원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인공지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아쉬워.

- ① 학생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③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④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 인공지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②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가 갖습니까?
- ③ 인공지능 제작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④ 인공지능을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 ⑤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6. (가)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는 (가)에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을 활용해 독서 시간 증가에 필요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다른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에서 소개된 선정 도서를 활용하여 행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 인터뷰를 활용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기사문 초고를 보강하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선생님의 조언**: 기사문은 일반적으로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의 구성을 취하는데, 본문 뒤에 덧붙이는 해설에는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추가 설명, 사건의 전망, 분석, 평가 등을 제시할 수 있어. 네가 작성한 기사문 초고에 해설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구나.

- ① ○○도서관은 모든 지역 구성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평 공모전과 독서 퀴즈 대회 등을 마련하고 학생 도우미 또한 모집했다.
- ② 지자체와 교육청 및 시민 단체와의 협력 기구 마련을 통해 독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및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③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④ ○○도서관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올해의 우리 마을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과정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⑤ ○○도서관이 기획하고 있는 다음 독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의 주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알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 **기고 매체**: 학교 누리집 게시판
- **글의 구성**
  - 1문단: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한다. ……㉠
  - 2문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린다. ……㉡
  - 3문단: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까지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개한다. ……㉢
  - 4문단: 조선왕조실록의 유실 위기와 일부 유실된 조선왕조실록의 재판찬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 5문단: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
  - 6문단: ㉣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언급한 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나) 학생의 초고

조선왕조실록이란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조선 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합친 책을 말한다. 즉,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한다. 조선왕조실록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편찬한 역사서가 아니라, 역대 조정에서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된 역사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은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왕과 신하들의 선악,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 편찬과 관리를 엄격하게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 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던 전문 관료였다. 사관의 기록은 왕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관 자신들도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로 다스려 엄하게 벌하도록 했다. 이렇듯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지켜졌으며 그 기록 내용은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을 후대까지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선 선왕의 실록 편찬 사업이 끝나면 최종 원고 네 부를, 서울의 춘추관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의 깊은 산중에 소재하던 사고(史庫)에 보관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실록은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총 네 군데의 사고에 각기 한 부씩 봉안되었다.

그러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안의와 손흥록이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 놓아, 전주 사고의 실록만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급하고 일반인들의 민족 문화유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국역문, 그리고 원본 이미지 모두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향상하고 웹 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새롭게 개선된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8. (가)의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를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조선 시대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듯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소중히 지켜가자.
- ②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③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렇듯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④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자료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조선왕조실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급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자긍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 ⑤ 그동안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0.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할 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국역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413책으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1995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전산화하여 시디롬(CD-ROM)으로 제작 보급했다.

-경○○문 일보

(나) 우리나라는 고려 초기부터 사관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했다.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에 걸쳐 차례로 편찬된 실록은 1011년 거란족의 침략으로 궁궐, 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포△△연구소

(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적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시한 일곱 가지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을 거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清歷朝實錄)도 296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식 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 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생활 기록이 담겨 있는 민족 문화서인 것이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 기술에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넷째, 조선 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조□□보 일보

- ① (가)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국역화의 노력이 디지털 자료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5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고려 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음을 밝히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백과전서식 실록이라고 할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대청역조실록에 비해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과 국역 사업을 엄격히 시행하여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음을 2문단에서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역사서를 소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임을 4문단에서 부각해야겠어.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동은 주어가 자의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당하는 일을 말하며, 피동문은 이러한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사가 서술어로 오는 문장이다. 국어의 피동문은 서술어인 피동사, 문장의 주체, 그리고 주체의 피동을 유발하는 실질적 주체가 모두 드러난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나는데, 이때 부사어의 실현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능동문의 유형에 따라 부사어가 실현되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동문은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나)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는 능동문이고, (가)는 (나)에 대응하는 파생적 피동문이다. 위의 두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타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로 쓰인다. 한편, 국어의 타동사에 피동사가 항상 대응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주다', '잡다', '밝히다'와 같은 경우,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어 타동사에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들의 피동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통사적 피동문이다. 능동문의 타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통사적 피동문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그가 물건을 친구에게 주었다'에서 '주었다'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주었다'에 '-어지다'가 결합해 '물건이 친구에 의해 주어졌다'라는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타내야 한다. 한편, 피동문 중에서 ㉠ 대응하는 능동문이 아예 없는 특수한 피동문도 존재한다. '날씨가 풀렸다'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날씨를 푸'는 상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수상자로 뽑혔다.
- ②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③ 그가 범인으로 몰렸다.
- ④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⑤ 산 위에 달이 걸리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사슴이 사자에게 먹혔다.
  - ㉡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
  - ㉢ 연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 ㉣ 팀원별로 일을 나누지 않았다.
  - ㉤ 지하철 안에서 나의 몸이 밀쳐졌다.

- ①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사자는 주어로 나타난다.
- ② ㉡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 ③ ㉢는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할 수 없는 예이다.
- ④ ㉣는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할 수 있는 예이다.
- ⑤ ㉤는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할 수 없는 예이다.

13.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내가 빌린 장난감은 내 친구의 것이다.
  - ㉧ 나는 상영이 시작되기 전에 영화관에 도착했다.
  - ㉨ 기타를 잘 치는 철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기업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14.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다른 합성어들과 마찬가지로, 합성 부사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의 품사는 다양하다. 합성 부사는 그 구성 성분에 부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나 '반짝반짝'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중첩하여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은 구성 성분 가운데 부사가 있는 합성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를 구성 성분으로 갖지 않는 합성 부사 유형으로는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유형이나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             |           |
|-------------|-----------|
| ㉦           | ㉧         |
| ① 죄다, 또다시   | 하루하루, 밤낮  |
| ② 잘못, 죄다    | 밤낮, 한층    |
| ③ 이것저것, 잘못  | 어느새, 골고루  |
| ④ 오늘날, 이것저것 | 이른바, 어느새  |
| ⑤ 오늘날, 죄다   | 오랫동안, 한바탕 |

15.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현대 국어에서 발견되는 몇몇 특이한 말들을 중세 국어에 관한 정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좁쌀'에 나타나는 'ㅂ'은 '쌀'의 중세 국어 형태인 '쌀'의 어두 자음군 'ㅃ'으로부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컷'의 'ㄷ'은 '수'가 중세 국어에서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었기 때문에 뒤의 'ㄱ'과 축약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내가'는 중세 국어의 대명사 '나'에 주격조사 'ㅣ'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에 훗날 새로이 등장한 주격조사 '가'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명사 '너'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 '네가'의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기 2>

㉠ 현대 국어 '입때'의 'ㅂ'은 중세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현대 국어 '살코기'의 'ㄷ'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현대 국어 '내가'와 '네가'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ㅣ'와 연관되는군.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프로이트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영역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의 체계를 세웠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 내면의 경계 안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속에는 가시적인 접근이 어려운 자료만 있을 뿐 실증적인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여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심리학을 연구하려는 이론인 **행동주의**

가 등장했다. 행동주의 학자들은 철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보는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이 중 심리학자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화를 증명하기 위해 진행했던 '스키너 상자 실험'은 주목할 만하다. 배고픈 상태의 흰 쥐를 스키너 상자에 넣고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게 한다.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다시 쥐가 상자 안을 돌아다니게 한다. 우연히 지렛대를 또 누른 흰 쥐는 먹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흰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된다. 스키너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대상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강화라고 명명했다.

흰 쥐처럼, 대상의 행동 횟수가 보상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 어떤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이다.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자극인 강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 **일차적 강화물**은 대상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극이다. 가령 당장 배고픈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면 바로 다음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 ㉡ **이차적 강화물**은 여러 일차적 강화물과 연결하여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돈이 가장 대표적이다. 돈은 대상을 직접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 강화물과 교환하여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강화물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켜 대상을 강화하기도 하나, 혐오자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강화가 가능하다. 스키너는 이를 ㉢ **정적강화**와 ㉣ **부적강화**로 구분했다. 예컨대 상품 구입 시 금액의 특정 비율만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원하는 자극을 증가시킨 정적강화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부모님의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 공부를 성실히 하는 것은 혐오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대상을 강화한 부적강화의 예시이다. 이처럼 스키너는 가시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자극과 반응의 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내면세계에 관한 연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스키너의 주장과는 달리 인지 심리학자들은 자극과 반응을 통해 활동이 유도되는 수동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극의 의미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능동적인 인간상을 강조했다. 단순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는 인간의 무한한 내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이 엄격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관찰 및 연구 분석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동주의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행동과 사고과정에 관한 연구를 인지심리학자들이 발표함에 따라 20세기 중반 행동주의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지식 습득을 위해 교사가 적절한 정적강화를 사용하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주의자들은 관찰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하다고 본다.
- ② 일차적 강화물은 특정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대상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③ 스키너는 반응 이전에 제시된 자극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했다.
- ④ ‘스키너 상자 실험’에서 흰 쥐가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강화를 경험할 수 있다.
- ⑤ 스키너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간주했다.

17.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화물은 그 자체로 대상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② 인간의 행동은 자극과 반응 때문에 학습 또는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있다.
- ③ 특정 행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본인이 경험하고 의식한 것이라면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본다.
- ⑤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조정하는 알고리즘 등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본다.

18.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물을 제공한 뒤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② ㉡: 일정 이상 구매 시 할인 쿠폰을 제시하는 경우
- ③ ㉢: 아동이 발표할 때마다 초콜릿을 제공하는 경우
- ④ ㉣: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에게 당번 일을 면제해주는 경우
- ⑤ ㉤: 자녀의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 경우

19. <보기>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다루는 보상 중 ‘벌’에 관련된 내용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단지 대상이 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만을 다루지 않는다. 특정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하는 강화물을 제거하거나 혐오자극을 제공한다. 이렇게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강화와 구별되는 것이 벌이다. 혐오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정적처벌, 즉, 수여성 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체벌을 들 수 있다. 그에 반해, 원하는 강화물을 제거하는 벌은 부적처벌, 즉, 박탈성 벌이라고 한다.

- ① 정적처벌은 부적처벌과 달리 혐오자극을 첨가하여 특정 행동을 증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정적처벌과 부적처벌의 분류는 연구 대상의 가치 판단에 따른다.
- ③ 반응 후 부정적 강화물을 제거하여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부적강화라 한다.
- ④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을 때, 학생이 편한 자세로 공부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박탈성 벌에 해당한다.
- ⑤ 행위와 벌 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필요하다.

20. 인지 심리학자가 ‘스키너’를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인간이 오로지 자극-반응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왜 동일한 외부 자극이 주어질 때 사람마다의 반응이 다른 것인가?
- ㉡ 금연하고자 하더라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이 어려운 것처럼, 개인 내적 요인들보다 환경이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
- ㉢ 인간의 내면에 착시나 조작된 기억 등이 존재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 ㉣ 가시적인 것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어떠한 내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 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나)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덤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 잡고 반가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옥식진찬 어데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금의화복 어데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 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사람 되었고나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데 전산후산에  
 황금 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굶일면서  
 한가히 띄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배부르고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를 쓸어내어  
 일부는 밥술하고 일부는 술술하여  
 밥머경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럴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다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어야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피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간 루에 올랐으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랴

- 안조환, 「만언사」 -

(다)

조선 시대의 가사는 역사적 전개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 가사의 역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임진·병자 양난을 거친 17세기 중기를 전후로 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 가사의 주 담당층은 송순·정철·박인로 등으로 대표되는 양반 사대부 계층이다. 그들은 생활의 체험과 흥취 및 신념을 노래했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은 ‘강호(江湖) 가사’이다. 이 작품들에는 혼탁한 세상의 고단함과 갈등으로부터 떨어져나와 자연에 묻혀 심성을 수양하며 살아가는 유학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에 따라 작품은 자연과 자아의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는 높은 정조를 띠게 되었다. 조선 후기 가사는 향유층이 다양해지면서 작품의 경향도 다양해졌다. 이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여성과 평민 작가층의 성장에 힘입은 문제의식의 확대·심화는 여러 표현 방법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사대부의 가사는 서정적인 기풍이 퇴조했으며, 기행 가사·유배 가사 등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구체적인 현실을 담아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 시대 유배 가사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조선 시대 전기 유배 가사의 경우에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더불어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 절개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기 유배 가사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서 등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념이 강조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조선 시대 전기 유배 가사와 달리 후기에 창작된 유배 가사는 일상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배에 대한 원망과 울분 토로 등 개인적 차원의 구체적 생활, 염원, 신념에 집중된 서술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서술자는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대상이 지닌 도덕적 결함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단정적 어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예찬적 어조를 통해 인간세계와 대비되는 자연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2.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보기>와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래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윤동주, 「참회록」 -

- ① (가)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와 ‘그때’는 가정된 미래의 성찰 시점을 의미하겠군.
- ② (가)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고 미래에서의 회고 형식으로 제시한 성찰은 내용상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이겠군.
- ③ <보기>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상상에 의한 미래의 성찰 시점을, ‘그때’는 현재의 성찰 순간을 가리키겠군.
- ④ <보기>의 ‘부끄러운 고백’이라 한 것은 현재의 성찰 행위에 대한 화자의 자평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보기>의 ‘참회의 글’과 (가)의 ‘짧은 글’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23. (다)에서 설명한 조선 시대의 가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 가사는 17세기 외세와의 전쟁을 기준으로 전기가사와 후기가사로 구분된다.
- ② 조선 전기 가사는 속세의 갈등에서 벗어난 유학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③ 조선 전기의 양반 사대부들은 자연과 자아의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 ④ 조선 후기 유배 가사는 개인적 차원의 염원에 관한 서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조선 후기에는 가사 문학의 향유층이 서민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사대부 의식의 계승으로 볼 수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만언사>는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로, 중인 출신의 작가가 궁궐에서 금전과 재물을 제멋대로 탕진한 직무상 비리가 발각된 후 유배를 가서 겪은 비참한 생활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의 일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술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부귀공명을 추구하던 자신과는 상반되는 삶의 지향이 있음을 묵도하고 얻게 된 깨달음도 드러나 있다.

- ① 궁핍한 생활로 인해 느끼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청운’은 부귀공명을 추구하던 자신에, ‘백운’은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농부에 대응되고 있다.
- ③ 직무상의 비리가 발각될 줄 몰랐던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상을 후각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⑤ 유배지의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자동차는 동력원으로 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디젤 엔진은 화석연료를 산소와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로 공기를 팽창시킨 후, 그 팽창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회전력을 얻는 대표적인 내연기관이다. 디젤 엔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 경유를 사용하며, 효율이 높고, 엔진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운송기기에 사용되어왔지만, 큰 ㉡ 출력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사용되기에는 몇몇 단점들이 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는 디젤 엔진과 유사하면서도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제트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제트 엔진에는 ㉢ 터보제트, ㉣ 터보팬, ㉤ 터보샤프트, 램제트 엔진 등이 있는데, 이 중 터보제트 엔진은 여객기, 민항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엔진이다. 터보제트 엔진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엔진의 앞에서부터 ㉥ 공기를 흡입하는 팬, 흡입된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압축된 공기를 연료인 항공유와 함께 ㉦ 연소시키는 연소장치 그리고 연소되어 팽창한 공기를 전달받아 방출하며 동력을 얻는 터빈이 있다. 터빈에서는 팽창된 공기가 엔진의 뒤로 방출할 때 생기는 반작용을 통해 추진력을 얻음과 동시에, 터빈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회전력을 얻는다. 추진력에 활용되지 않은 이 회전력은 터빈 중앙의 축인 샤프트를 통해 팬과 압축기로 전달되어 팬과 압축기를 더 강하게 회전시킴으로써 팬이 더 많은 외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기를 압축기가 더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에서 팬의 크기를 키우고, 커진 팬의 크기만큼 엔진의 외부에 외장을 추가한 엔진이다. 터빈에서 얻어지는 회전력이 충분할 때, 팬을 크게 만들어 엔진과 외장 사이에 추가적인 공기가 흐르게 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추진력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를 바이패스 공기라고 하며, 이때 흡입된 공기는 두 경로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는데, 엔진 내부의 압축기와 연소장치를 지나 터빈으로 향하는 기존 경로와 엔진 외부와 외장 사이를 연소 없이 지나치는 바이패스 경로가 있다. 바이패스 공기는 압축되지 않은 채 팬에서 받은 회전력과 점점 좁아지는 엔진 외장의 형태로 인해 가속되는데, 이는 연료의 연소 없이 엔진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 바이패스 공기의 양을 터빈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양으로 나눈 값을 바이패스 비라고 하며, 일반적인 민항기에서 바이패스 비는 8정도이다. 이때, 민항기에서 바이패스 공기를 통한 추진력은 전체 추진력의 80% 정도가 된다.

헬리콥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터보샤프트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과 ㉧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공기를 흡입 및 배출한다. 하지만 터빈에서 배출되는 공기로는 추진력을 얻지 않고 터빈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회전력을 샤프트를 통해 프로펠러로 전달함으로써,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또한 터빈과 압축기가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압축기와 샤프트가 연결될 경우 터보프롭 엔진으로 별도로 분류한다.

초음속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으로 비행할 때 공기가 자연적으로 엔진으로 흘러들어 압축되는 것을 활용하며, 터보제트 엔진과 달리 팬과 압축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터빈을 설치할 경우 흡입, 연소되어 팽창된 공기가 터빈에 가로막혀 역으로 압축기나 팬이 없는 엔진의 앞부분으로 역분출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터빈 없이 공기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반작용만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25.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적인 내연기관을 소개 후 항공기에 사용되는 동력원의 구성을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 ② 항공기의 대표적인 동력원을 중심으로 유사한 다른 동력원의 단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 ③ 터보제트 엔진의 구성을 설명하고 이를 보완한 엔진들의 특성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④ 터보제트 엔진과 램제트 엔진의 차이점을 통해 터보팬 엔진이 헬리콥터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통해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하게 된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디젤 엔진과 터보제트 엔진은 다른 연료를 사용한다.
- ② 터보제트 엔진에서 공기가 팽창하는 곳은 연소장치이다.
- ③ 터보팬 엔진에서 압축된 바이패스 공기는 방출 전에 연소되지 않는다.
- ④ 터보샤프트 엔진에서 압축기와 샤프트를 연결하면 터보프롭 엔진이 된다.
- ⑤ 램제트 엔진에는 터빈이 없는 이유는 역분출을 막기 위함이다.

27.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민항기에, ㉤은 헬리콥터에 주로 사용된다.
- ② ㉠과 ㉣은 터빈이 압축기를 회전시키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③ ㉣과 ㉤은 회전력을 추진력으로 활용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④ ㉠과 ㉤은 흡입된 공기가 전부 연소장치를 지나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⑤ ㉠과 ㉤은 샤프트가 없어도 추진력을 얻지만 ㉣은 그렇지 않다.

2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터보팬 엔진을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터보팬 엔진에서는 터빈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할 때 외장 지름의 크기와 팬의 크기가 비례하며 팬의 크기가 커지면 바이패스 비도 커진다. 바이패스 비가 높을수록 바이패스 공기를 통해 얻는 추진력이 전체 추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엔진에서 연소하며 방출하는 공기의 양, 연소되는 연료의 양 및 터빈의 크기는 서로 비례하며 추진력은 방출되는 공기의 양으로 생각한다. 아래는 시중에 사용되는 두 터보팬 엔진이 재원이다.

A 제품: 외장지름 3.02m, 최대추진력 87000lbf  
 B 제품: 외장지름 2.25m, 최대추진력 34000lbf

- ① A 제품의 팬과 외장지름을 줄인다면 최대추진력이 줄어들어 엔진에서 연소되는 공기의 양도 줄어들겠군.
- ② 두 제품의 터빈의 크기가 같다면 연소되는 전체 공기는 A 제품 더 많고 바이패스 비도 A 제품이 더 크겠군.
- ③ 두 제품의 터빈의 크기가 같다면 B 제품은 최대추진력을 키우기 위해 팬과 외장지름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군.
- ④ 바이패스 비가 같다고 해도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엔진에서 연소되는 연료의 양이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겠군.
- ⑤ 두 제품 다 민항기에 사용되고 바이패스 비가 8이라면 바이패스 공기의 의한 추진력은 각각 43500lbf, 17000lbf 정도이겠군.

29.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에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그는 이탈리아를 경유하여 프랑스로 갔다.
- ② ㉡: 정수는 어제 남은 과제를 출력하여 제출했다.
- ③ ㉢: 밥 한 공기의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다.
- ④ ㉣: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연소했다.
- ⑤ ㉤: 그곳은 사막 지역에 가까워 유사가 많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덧 동기 휴가가 되고, 새해가 되고,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김 강사는 아무 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외국서 온 신문, 잡지는 걸봉도 안 뜯긴 채 방 안에 흩어졌으나 그것을 정돈하기가 싫었다. 김 강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밥을 한술 떠 넣고 바람 부는 거리로 헤매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피곤하면 거리에 잡자기 많아진 찻집을 찾아 정신 나간 사람같이 앉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피곤을 느꼈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 어느 편으로든가 그는 그 모순의 터져나갈 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것을 구할 방도와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

‘L’ ennui lui vint.’ 벌써 칠팔 년 전에 읽던 도데의 소설에서 우연히 기억한 이 짧은 구절이 무슨 깊은 의미나 가진 것처럼 매일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T 교수는 겨울 동안에 몸이 한층 더 뚱뚱해진 것 같았다. 아무리 추위도 답답하다가 바지 밑에는 잠방이 하나밖에 안 입고 다니건만 얼굴은 기름이 번질하게 흐르고 붉은 빛이 이글이글 하였다. 교무실 안은 그의 너털웃음과 떠드는 소리로 일상 떠들썩하였다. 겨울 이후로는 그는 조선의 민속을 연구한다고 젊은 무당과 양금, 가야금 뜯는 기생을 돼지 떼처럼 몰고 다녔다.

(중략)

“어젯 저녁에 H 과장을 만났더니 긴 상을 좀 만나자고 그러디다. ㉡ 우리 교장의 성미는 내가 잘 아니까 요전에도 무슨 과자상자라도 갖다 주라니까, 아마 안 그랬지요? 허, 긴 상은 실례의 말이지만 아직 세상을 모른단 말요. 무슨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찌 도무지 공기가 좀 재미없는 듯 하던걸요. 아마 H 과장도 이 근래는 한 번도 안 찾아갔지요? 그것도 다 긴 상의 설부른 짓이란 말씀이오. 긴 상으로 말하면 H 과장의 추천으로 들어왔것다 잘만 하면 차차 시간도 더 얻을 수 있구 할 텐데 왜 실수를 한단 말씀이오.”

T 교수는 충심으로 김 강사를 동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그럴듯한 말이나 김만필에게는 어찌 T의 하는 말이 뻘치고 등 만지는 수작같이 생각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H 과장은 곧 찾아가지요.”

그는 침이나 뱀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으로 곧 H 과장을 찾아갔다. 불안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H 과장 집 현관에는 마침 손이 있는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에는 H 과장 혼자서 앉아 있었다. 하녀가 와서 테이블 위의 찻종을 치우고 있는 것이, 누가 왔다가 금방 간 모양이다. H 과장은 웬일인지 노기가 등등해 앉아 있었다. 일상의 그 온후하던 안색은 간 곳 없고 독살스러운 눈으로 김만필을 노려보았다.

“무얼 하러 왔나?”

그는 김만필이 방을 들어서자마자 대고 쏘았다. 김만필은 너무나 의외여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T 말이 과장께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기에…….”

“만나자고 해야만 만나겠나. 자네한테 긴할 땐 자꾸 찾아오고 자네한테 일없이 되니까 발을 뚝 끊는 그런 실례의 경우가 어디에 있나! 그러기에 조선 사람은 배은망덕을 한다고들 하는 게야.”

“잘못되었습니다.”

㉣ 김만필은 앉지도 못하고 과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H 과장은 노한 소리를 한층 높여

“자네는 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나는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제가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속이다니요? 자네는 나한테 와서 취직 청을 할 때 무어라

고 그랬어. 사상 방면에는 절대로 관계없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데가 어디 있나?”

올 것이 온 것이다, 라고 김만필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  
게 되고 보면 어디까지 한 번 버티어 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상이니 무  
어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과장님을 속이다  
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때 이웃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언제나 일반적으로 봄  
물결이 넘실넘실하듯 온 얼굴에 병글병글 미소를 띤 T 교수가  
응접실로 들어왔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강사는 H 과장에게 사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항변하고자 했다.
- ② T 교수는 김 강사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H 과장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 ③ H 과장은 T 교수가 배은망덕하다며 김 강사를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 ④ T 교수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김 강사는 H 과장에게 찾아가갈 수밖에 없었다.
- ⑤ 김 강사는 H 과장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포기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김 강사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T 교수의 성격이 드러난다.
- ③ ㉢: 김 강사는 비겁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T 교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④ ㉣: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김 강사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김 강사의 위선적인 면이 나타난다.

32. **취직 청**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T 교수가 김 강사를 위해 H 과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 ② T 교수가 김 강사에게 위협을 느끼며 거절한 것이다.
- ③ 김 강사가 현실과 타협하게 된 계기이다.
- ④ T 교수의 약삭빠른 면모가 드러나는 사건이다.
- ⑤ 김 강사가 T 교수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수락받은 것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대학 시절 좌익활동을 했던 한 지식인이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 어렵게 구한 자신의 강사 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자신의 신념을 숨기고 멸시를 감수한다는 내용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인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소지식인의 무기력한 패배주의가 만연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 ① H 과장의 약삭빠른 면모를 통해 당대 지식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김 강사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신념을 지키지 못한 당대 지식인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 ③ 작가는 김 강사가 자신의 거짓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 비양심적인 지식인을 비판하고자 한다.
- ④ 교활한 성격을 가진 T 교수가 김 강사를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본래 선함을 알리고자 한다.
- ⑤ T 교수가 김 강사에게 교장을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대화를 통해 교육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상서 화육의 부인인 심 씨와 정 씨는 각각 아들 화춘과 화진을 낳는다. 화육이 죽자, 화춘의 부인인 조 부인이 화진의 부인인 남 부인을 독살하려 한다.

축중 화악산 자현암에 있는 여승 청원이 일찍 남 어사 집에 와서 관음화상을 받아 갔더니, 이때 청원이 일몽을 얻으니, 관음보살이 환약 세 개를 주며 말하기를,

“모월 모일 밤에 남 부인 채봉이 비명횡사할 것이니, 네 그날 밤에 삼경이 되거든 이 약을 가지고 소흥부 보림사 소나무 앞에 가서 남 부인을 구하라.”

청원이 깨어 보니, 과연 환약이 세 개가 곁에 있는지라. 즉시 석장 단가로 쫓아와서 보림사 명주암에 이르니, 이곳은 화부 복원 밖이라. 이때 윤 부인과 남 부인의 시비 계쟁과 쌍섬이

조 부인에게 쫓기어 이 암중에 와서 숨어 있는지라. 각각 자기 주인을 생각하고 서로 말하며, 눈물을 흘려 하늘에 부르짖거늘, 청원이 모르는 체하고 묻지 아니하다가, 이날 밤에 청원이 계 앵과 쌍섬더러 말하기를,

“그대의 주인이 곤백이 심한지라. 내 마땅히 구하고자 하노니, 그대들은 나를 따라오라.”

하고, 청원은 즉시 동구를 향하여 달리더라. 쌍섬 등은 크게 의혹하여 청원을 따라간즉, 남곡 쌍송하에 이르러 청원이 문득 머무르며 가지 아니하고 손짓하여 가로되,

“이곳이다!”

하더니, 홀연 한 대한이 등에 큰 발을 묶어 지고 오다가 길가에 짐을 벗어 놓고 돌을 베고 누우며 인하여 잠이 들거늘, 청원이 가까이 가서 그 발을 어루만지며, 계앵으로 하여금 치어들라 하니, 계앵은 놀랍고 다리가 떨려서 능히 들지 못하더라.

청원은 애달파 하며 이르되,

“만일 늦으면 구치 못하리라. 빨리 들라!”

하니, 계앵이 이러한 청원의 말을 듣고 비로소 부인이 그리된 줄 알고 놀라 울면서 땅에 엎어지거늘, 청원이 급히 붙들며 말하기를,

“그대가 이리 할 때가 아니라!”

하고 청원은 스스로 그 발을 들고 보니, 부인의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가슴에 온기마저 있거늘, 청원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낭중에서 환약을 내어 먼저 한 개를 온수에 갈아 입에 흘려 넣으니, 부인은 눈을 떠 보고 숨을 내쉬며 돌아눕거늘, 또 한 개를 온수에 타서 흘려 넣으니, 부인은 독한 물을 토하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며 일어나 앉는지라. 청원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부인은 안심하소서!”

“존사는 어떠한 사람이건대 이미 끊어진 목숨을 구하시나이까?”

하고 소생한 부인이 말하더라.

“부인은 능히 빈도의 얼굴을 기억하시리이까?”

부인이 이윽히 보다가,

“7년 전에 관음화상을 받으러 왔던 대사가 아니시오니까?”

하고 물으니,

“부인은 과연 알아보시도다! 그때 빈도가 부인을 뵈오매, 수목이 청수하시고 화려하사, 자못 진세 사람 같지 아니하시고, 또한 실 같은 호린 기운이 천정\*에 끼었으며, 이 액을 만나실 줄 알았사오나, 오는 액은 어려우매, 사생이 [A] 다 명이있는지라, 말하여 유익함이 없사오매, 말씀하지 아니하였사오며, 부인이 수증 용왕의 덕을 입사와 백신이 호위하였으며, 요열\*이 감히 범치 못하리로소이다!”

부인은 탄식하며 동정호 금사탄의 참화를 말하고, 인하여 말하되,

“내가 능히 부모를 따라 죽지 아니고로 황천이 반드시 나의 불효를 미워하사 오늘날 화액을 또 내리오심인가 하노라. 대사가 부질없이 자비심을 드리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고생케 하시니, 이는 은혜가 아니요, 도리어 원이로소이다!”

“부인이 천명을 아지 못하나이다. 자고로 성현이 먼저 곤액을 겪은 후에야 그 도를 통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 세존의 설산지고\*와 공부자의 진채지액\*이 다 그러하심이라. 이제 부인이 총명 자혜로 이 고난을 만나 이 소문이 없은즉, 후세에 부인의 유물을 알 리 없을지니, 그러므로 황천이 부인의 덕화를 천하에 나타내심이라. 석상 [B]에 오동나무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설풍이 불며 법상이 어리어, 그 가지와 줄기가 질기고 딱딱하므로 깎아서 거문고를 만들면 금석이 그 소리를 아나니, 이른바 마음이 통하고 성품을 참는 자는 다만 낭자뿐만 아니라, 부인도 또한 그러하나이다.”

하고, 인하여 청원은 관음보살의 현몽하시던 말을 전하고 또 가로되,

“부인이 아직도 또한 수년 재액이 있어서 불가로 더불어 인연이 있사오니, 이제 빈도와 한가지로 돌아가 관음보살의 지하여 수년만 지나면 자연 복록이 무궁하고, 재앙이 영영 물러가리이다.”

하더라.

부인은 탄식하고 쾌히 허락지 아니타가 그날 밤에 일몽을 얻으니, 관음보살이 현몽하사, 징조를 보이고 다음 날 남 부인이 계앵으로 더불어 남북으로 갈아입고, 청원을 따라 축중으로 들어간 것이니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 -

\* 천정 : 눈썹 사이.

\* 요열 : 요망한 귀신.

\* 설산지고 :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하고 득도한 것.

\* 공부자의 진채지액 :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당한 곤경.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우연적 요소에 의해 인물이 처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취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립하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청원이 시비들보다 먼저 부인을 발견했다.
- ② 시비들은 명주암에서 청원을 처음 만났다.
- ③ 시비들은 부인을 구하러 간다는 청원의 말을 의심했다.
- ④ 남부인은 청원의 말을 단번에 믿고 받아들였다.
- ⑤ 청원은 남 부인을 구하기 위해 가져온 환약 두 개를 사용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의 공간은 현실 세계에 해당하는 현상계와 초월적 존재의 세계인 초월계로 나뉜다. 등장인물들은 현상계에서 덕을 실천하는지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 이때 초월계는 선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덕을 실천하던 선인이 겪는 시련의 정도가 극에 달해 현상계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에 처했을 때 초월계의 존재나 그 대리인이 개입하여 시련이 극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월계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선인은 유교 이념을 다른 인물에게 전파하는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청원의 꿈에 나타나 남 부인을 살릴 환약을 주는 관음보살은 선인을 구하는 초월계적 존재라고 볼 수 있군.
- ② 청원이 7년 전 관음화상을 남 부인에게 받게 된 인연으로 초월계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로군.
- ③ 청원의 마지막 말로 보아 남 부인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 또한 초월계의 도움으로 극복될 것임이 드러나는군.
- ④ 청원이 남 부인의 덕화를 칭송하는 것으로 보아 남 부인은 현상계에서 덕을 실천해 온 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남 부인이 다른 인물에게 유교 이념을 전파하려 할 때마다 초월계의 존재인 관음보살이 현상계에 나타나고 있군.

3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② [A]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지금의 경험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B]는 고사성어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 ⑤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이 후보에게 직접 표를 행사하여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표를 행사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구 의원으로 나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서 지역구 내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 결정한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당 당선인을 1인으로 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어 정국이 안정되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지만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렵고 사표\*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전국구 국회의원은 정당투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정당투표율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각 정당의 유효 투표의 득표수를 통해 산출한다.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서 당선표보다 사표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대표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각국에서 비례대표제 도입이 활발해졌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 실시하였던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의원과 지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출한다. 이는 국민이 정당과 후보자에 각각 투표하여 1인 2표를 ㉣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 완전 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모든 의석수를 정당투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투표율을 모든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여 사표가 최소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정당의 수가 늘어나 군소정당의 난립이 심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을 구분하여 선출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내에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허나 전국구 의원에 배정된 의석수가 적을 경우 다수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소수당의 진입이 쉽지 않아 시행 목적과는 달리 거대정당만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대두되면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통해 총 의석수를 배분한 후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 조정하는 방식이다. 단, 당선된 지역구 의원수가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이를 초과 의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총 의석수가 10석이며 5명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한다. 갑국의 지역구 대표 선거 결과 당선자 비율이 A당은 80% B당은 20%이며 정당득표율은 A당이 20% B당은 80%라고 할 때, 정당득표율을 통해 배분한 의석수는 A당이 2석 B당은 8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A당의 경우 지역구 4석, 비례대표 0석을 얻고 B당의 경우 지역구 1석, 비례대표 7석을 얻는다. 이때 A당의 경우 원래 비례대표 의석수는 2석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로 4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인정되어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의석수는 12석이 된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을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권자의 의견을 ㉧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겨지며 실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 사표 :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투표를 통해 실시한다.
- ②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대표성이 높다.
- ③ 지역구 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통한 선거에서 1개의 정당이 독점하더라도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39. 밑글의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국민의 의사 반영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②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와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모두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 ③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 비해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투표 결과와 의석률이 거의 일치한다.
- ④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와 달리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⑤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와 달리 ㉠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특정 범위 내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1명을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한다.

40. 밑글의 ㉢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국은 ㉢의 선거제도를 실시한다. 갑국의 의회 의석수는 100석이며 5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갑국의 최근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각 정당의 의석률은 모두 다르다.)

투표 결과 \ 정당	A	B	C	D
정당투표율 (단위 : %)	50	30	15	5
지역구 당선자 (단위 : 석)	㉠	25	㉡	㉢

- ① ㉢의 제도를 실시하는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의석은 최대 20석이다.
- ② ㉢의 제도를 실시하는 갑국에서는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
- ③ ㉢의 제도를 실시하는 갑국에서는 지역구 의석수와 전국구 의석수가 동일한 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의 제도를 실시하는 갑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0석인 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의 제도를 실시하는 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별 의석 수 순위는 A>B>C>D, A>B>D>C이다.

41. 밑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만을 선출하는 갑국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4개이다. 지역 내 당선자의 대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제도를 유지해왔지만 2개의 거대정당이 의석을 모두 차지하여 양당제\*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갑국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양당제 : 세력이 비슷한 2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하여 교대로 집권하는 형태.

- ① 갑국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개의 정당만이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표가 적게 발생하겠군.
- ② 갑국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원만을 뽑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투표 결과에 왜곡없이 반영되겠군.
- ③ 갑국이 현행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의회의 총 의석수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겠군.
- ④ 갑국이 현행 제도를 개편한다면 지역 대표성을 띠는 의원은 없겠군.
- ⑤ 갑국이 현행 제도의 내용을 없애고 선거방식을 개편한다면 정당득표율과 의석률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겠군.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선출한다
- ② ㉡ : 시행했던
- ③ ㉢ : 던지는
- ④ ㉣ : 정비하는
- ⑤ ㉤ : 모을 수 있는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중(忍從)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놓은  
 ㉠ 칠혹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

(나)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섭섭하지 않게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뜸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 다오

㉣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

- 황동규, 「풍장(風葬) 1」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 ②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부각한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낸다.
- ⑤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종소리를 울리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은 역사에 갇혀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의지를 상실하는 공간이다.
- ③ ㉢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을 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은 시간과의 단절을 통해 삶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⑤ ㉣은 과거에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던 화자를 보여준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자유에 대한 화자의 열망과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종’과 ‘종소리’의 관계를 억압적 현실과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 의지로 설정하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풍장’을 통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죽음관을 보이며, 물질적인 삶의 구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① (가)에서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새에 투영하여 나타내려 했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바람에 실리고자 하는 것을 보니, 바람은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군.
- ③ (나)에서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는 것을 보니, 물질적인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④ (나)에서 바람을 이불처럼 덮겠다는 것을 보니, 죽음에 초연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⑤ (가)에서는 종소리의 전파를 통해 (나)에서는 풍장의 과정을 통해 구속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